



# 한기주 첫 '뒷문대결' 관심 오승환

“한기주나, 오승환이나”  
 지난 주 4연패 뒤 2연승을 질주, 상승모드로 재 진입한 KIA가 4월 넷째주(24~29일) 선두권 진입의 갈림길에 선다.  
 선두 SK와 3.5게임차 단독 5위를 기록중인 KIA는 최근 5경기에서 4승1패로 가파른 상승세를 탄 2위 삼성과 대구에서 힘겨운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주말에는 광주에서 한화(5승7패1무·6위)와 맞붙는다.

## 삼성과 힘겨운 3연전 예상

특히 이번 주는 삼성과의 맞대결이 흥미롭다. ‘특급 마무리’ 한기주(20·KIA)와 오승환(25·삼성)의 올 시즌 첫 뒷문 대결은 큰 볼거리다. 양팀의 팀 타율이 나란히 7(0.242·KIA), 8위(0.228·삼성)로 부진한 탓에 마운드 대결에서 1~2점차로 승패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기주는 올 시즌 7경기에 나서 2패 4세이브로 평균 자책점 4.50을 기록중이다.  
 눈에 띄는 성적은 아니지만 최근 최고 구속 156km의 강속구를 앞세워 4세이브를 올리는 등 최절정의 감각을 뽐내고 있다.  
 여기에 선발과 마무리를 연결하고 있는 ‘미들맨’ 신용운(8경기·13.2이닝·평균 자책점 0.66·1승)의 지원투구도 든든하다.

## KIA 금주의 프로야구

◇프로야구 중간순위 (23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9	3	2	0.750	-	1승
2	삼성	8	5	1	0.615	1.5	3승
2	LG	8	5	0	0.615	1.5	2패
4	롯데	8	7	0	0.533	2.5	1패
5	KIA	7	8	0	0.467	3.5	2승
6	한화	5	7	1	0.417	4.0	1패
7	현대	5	9	0	0.357	5.0	1승
8	두산	4	10	0	0.286	6.0	2패

삼성 마무리 오승환은 평균자책점 0의 행진을 이어가며 ‘철벽 소방수’로 변함없는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9경기에서 2승 6세이브를 올렸는데 8개 구단 소방수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자책점이 0을 기록 중이다.  
 믿음직한 셋업맨 권오준의 이탈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권혁, 권오원외 기대 이상의 호투를 벌이면서 오승환의 호투수에 구원병이 되고 있다.  
 KIA는 일단 24일 첫 대결의 선발투수로 신인 좌완 양현종을 예고했다.  
 올 시즌 4경기 8.2이닝동안 평균 자책점 4.15로 1

패를 기록중인 양현종은 프로 첫 입문전인 지난 12일 광주 현대전에서 5.2이닝 무실점 호투로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렸다. 24일 경기에서도 5이닝 이상만 잘 버텨준다면 신용운-한기주로 이어지는 철벽 계투조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선에선 3할타를 기록중인 이현곤(0.373)과 이재주(0.360), 홍세완(0.304) 등 중심타선이 삼성 선발 윌슨 격과의 선봉상에 선다.  
 여기에 그동안 빈타로 마음 고생이 심했던 이용규와 장성호도 최근 되찾은 타격감으로 힘을 보탠다.

## 주말 한화전 선두권 진입 기회

이에 맞서는 삼성타선은 거포 심정수(0.283)와 양준혁 등을 중심으로 한 타선의 집중력이 매섭다. 타율 장타율, 출루율은 모두 하위권인데 팀 득점력은 롯데 SK에 이어 3위다.  
 또 득점권 타율도 3위(0.247)다. 한마디로 이기는 야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양팀중 한팀의 우세를 평가하기 힘든 대목이다.  
 주말파트너는 하위팀 한화라 해볼만 하다.  
 시즌 초 8개구단 가운데 가장 공격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됐던 한화는 탄탄한 투수력에도 불구하고 터지지 않는 방망이로 하위권으로 처져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앤서니 김 시즌 최고 3위

## PGA 챔피언십 클래식 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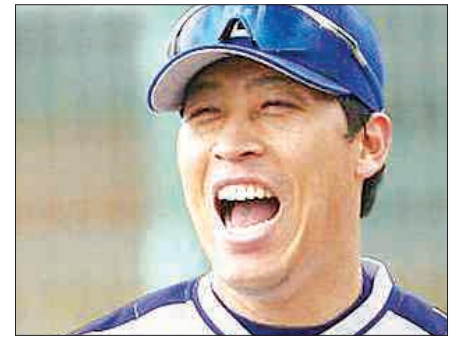
유망주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이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십 클래식에서 공동 3위의 시즌 최고 성적을 거뒀다.  
 앤서니 김은 23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루이지애나 TPC(파 72·7천34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버디 9개와 보기 2개로 7언더파 65타의 데일리 베스트샷을 터뜨렸다.  
 앤서니 김은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자인 닉 와트니(미국·15언더파 273타)

에 4타를 뒤졌지만 올 시즌 열 번째 경기에 출전해 최고 성적을 냈고, 톱10에 세 번째 입상하면서 신인왕을 향해 질주했다.  
 그러나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는 이날 2타를 잃어 합계 2언더파 286타로 공동 44위까지 떨어졌다.  
 3라운드에서 노장 마크 칼라베카(미국)를 제치고 선두에 나섰던 와트니는 이날도 3타를 잃어 2위인 켄 듀크(미국·12언더파 276타)에 4타차로 여유있는 생애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칼라베카는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5위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앤서니 김이 23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루이지애나 TPC에서 열린 PGA 투어 챔피언십 클래식 마지막 날 18번홀에서 버디 퍼팅에 성공한 뒤 기뻐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홍’들의 이번주 목표는?



## 승업 팀 5천승 최다안타 병규

어제 통증을 참아가며 4번 타자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과 ‘안타 제조기’로 자리 잡은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가 이번 주에 각각 팀 5천승과 최다안타 1위를 목표로 한다.  
 1936년 창단한 요미우리는 시즌 21경기를 치른 23일 현재 4천995승을 올려 일본프로야구 사상 첫 5천승에 5승만을 남겼다.  
 22일 한신을 물리치고 센트럴리그 선두로 치고 나간 요미우리는 여세를 몰아 24일~26일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그리고 28일~30일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경기에서 5천승을 노린다.  
 그러나 정작 이승엽의 컨디션은 썩 좋지 못하다. 시즌 전부터 괴롭혀 온 왼쪽 어깨 통증 탓에 이승엽은 21일과 22일 한신전에서 이틀 연속 경기 중 교체됐다.  
 하라 감독은 “이승엽이 스윙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이승엽은 경기 후 얼음 찜질로 통증을 가라 앉히고 있으나 정확한 통증 원인을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  
 홈런 4개를 때리고 12타점을 올린 이승엽은 4번 타자답게 이 부문에서 팀 내 1위를 고수 중이나 리그 1위인 주니치의 타이론 우즈(8홈런·22타점)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은 올해 요코하마와 야쿠르트전에서 타율은 각각 0.200, 0.273로 그다지 좋지 않지만 홈런은 1개씩을 터뜨렸다.  
 지난 21일 야쿠르트전에서 1이닝 2안타를 포함, 일부 진출 후 한 경기에서 처음으로 4안타의 맹타를 휘둘렀던 이병규는 히로시마 도요 카프, 요코하마를 상대로 안타수를 더욱 늘려갈 태세다.  
 시즌 타율 0.308을 때린 이병규는 23일 현재 안타 24개로 리그 최다 안타 5위에 올라 있다. 29개로 이 부문 수위를 질주 중인 요미우리의 2번 타자 다니 요시토모와 격차는 5개다.  
 히로시마전에서는 2안타 밖에 못 쳤지만 요코하마를 상대로는 안타 7개에 타율 0.583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기에 안타가 쏟아질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병규는 24개의 안타 가운데 10개를 초구, 볼 카운트 0-1, 0-2 상황에 터뜨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 2-1로 볼 카운트가 불리했을 때는 안타가 4개 밖에 없다.  
 특히 바깥쪽 슬라이더를 주로 던지는 왼손 투수를 상대로 타율 0.385(26타수10안타)로 더욱 잘 쳤다. 몸쪽 빠른 공과 포크볼로 무장한 오른손 투수에게도 타율 0.292로 나쁘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4타자 연속 홈런

### 보스턴 레드삭스, 양키스전서 통산 5번째 진기록 달성

미국 프로야구에서 역대 5번째로 4타자 연속 홈런이 터져 나왔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보스턴 퀘어리파커스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서 0-3으로 뒤진 4회말 2사 뒤 4타자가 연속 홈런포를 쏘아올려 4-3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최근 부진했던 강타자 매니 라미레스가 양키스의 새내기 체이스 라이트를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터뜨린 보스턴은 이어 J.D. 드류와 마이크 로웰이 잇따라 아치를 그렸고, 제이슨 베리텍은 왼쪽 담장을 넘어 관중석 상단을 직격하는 초대형 홈런을 작렬시켰다.  
 타자 네 명이 연속으로 담장을 넘긴 것은 보스턴 팀 사상 처음이며 1961년 밀워키, 1963년 클리블랜드, 1964년 미네소타, 2006년 LA 다저스에 이은 메이저리그 통산 5번째. 보스턴은 4-5로 뒤진 7회말 로웰이 다시 3점홈런을 터뜨리는 등 이날 홈런 5방으로 7점을 뽑아 7-6으로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본즈 740호 홈런

### 최다 신기록 16개 남아

미국프로야구 ‘홈런왕’ 배리 본즈(43·사진)가 740호 홈런을 터뜨려 최다 홈런 신기록 경신에 16개를 남겼다.  
 본즈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벌어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에서 1-0으로 앞선 4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애리조나 선발 투수 요시메이로 페티트의 초구를 잡아 당겨 우측 펜스에 꽂히는 솔로 홈런을 날렸다.



올해 6개의 홈런을 때린 본즈는 현재 이 보유하고 있는 최다 홈런 기록(755개)을 오는 6월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배 고교야구 내일 개막

2007년 전국고교야구대회의 첫 테이프를 끊는 제41회 대통령배대회가 25일 동대문구장에서 막을 올린다.  
 48년 역사를 뒤로 하고 올해 연말 철거될 동대문구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이 벤트가 될 이번 대회에는 지난 해 우승 팀 서울 장충고를 비롯해 지역 예선을

통과한 27개 팀이 참가해 최강자를 가린다.  
 25일 낮 1시 덕수고-성남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9일 간 열전을 펼치며 결승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광주·전남에선 광주 제일고와 순천 효천고가 출전한다.